

“韓中관계 추가 악화시 피해 22조 ↑”

산은경제研, 화장품·면세점·관광업 영향 커... “中 제재 조치 장기화 가능성 있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해 향후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 이에 따르는 경제적 피해가 올해 약 200억달러(약 22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는 '사드배치와 한중관계 악화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은경제연구소는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향후 전망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우선 한중 관계가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액은 총 99억8400만달러(약 11조1700억원)다.

세부적으로는 대중(對中) 면세점·관광 매출이 전년 대비 73억4200만달러, 주요 제조업 수출이 26억4200만달러 감소한다.

만약 한중 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빠져 추가 경제제재조치 시행, 반한감정 확산 등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는 두 배로 불어난다.

면세점·관광 매출은 117억4600만달러, 주요 제조업 수출은 82억8700만달러 줄어 총 피해액은 200억3300만달러(약 22조4000억원)가 된다.

산업별로 보면 관광 분야 매출액이 전년 대비 63억9600만달러 감소해 타격이 가장 크다.

면세점(-53억5000만달러), 석유화학(-51억6000만달러), 화장품(-14억3500만달러) 분야도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 보복 조치로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을 전면 금지시킨 가운데 한 면세점이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은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한미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 중국은 직접적인 제재 조치 등 보복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과거 중국이 일본, 대만 등과 국가 안보 이슈로 충돌했을 때 강경대응을 지속한 사례를 감안하면 향후 중국의 제재 조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이 일어나 추가 피해

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은경제연구소 중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대(大)·중(中)·소(小)·미미’로 분류했는데 대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화장품·면세점·관광업을 꼽았다. 중에는 자동차·휴대폰·섬유·석유화학·해운업, 소는 철강·일반기계업, 영향 미미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건설업 등을 선정했다.

최근 타국책은행 연구기관들도 중국의 제재 조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수출입은행리소스센터는 중국 경제 제재에 따른 피해액이 7조3000억원에서 16조2000억원으로 내다봤다. IBK경제연구소 역시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삼성전자, 갤럭시S8 광고 시작

삼성전자가 오는 30일 갤럭시 S8 공개를 앞두고 새로운 광고를 시작했다.

새로운 광고는 ‘도’부터 잠음계를 차례대로 보여주는 기존 광고에 이어 무심코 방문을 연 남자가 스펙터클한 우주를 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갤럭시 신제품과 함께 펼쳐질 경이로운 세계를 예고한다.

광고 속에서 또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은 지난 2월 공개한 초정장의 갤럭시 제품과 겹치며, 갤럭시 신제품이 새로운 모바일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삼성전자는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와 함께 언팩 초정장의 ‘Unbox your phone’라는 문구로 영상을 마무리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신제품 광고와 연계해 광고에서 암시하고 있



는 갤럭시 신제품의 특징점을 추측해보는 이벤트도 3월 29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갤럭시 신제품 마이크로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대우조선 구조조정, 합의 안되면 법적 강제력”

임종룡, 최종 목표는 M&A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의 법정관리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금융위원장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우조선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손실 분담에 합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법적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법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의미한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접근법은 모든 이해관계의 손실분담하에 기업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법정

관리, 워크아웃, 기업분할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목표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의 M&A를 위해서 ‘조선업계 상황이 나아진다는 전망’과 ‘과도한 부채의 청산’ 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황이 나아진다는 전망이 있어야 M&A 수요자가 생긴다”며 “크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올해와 내년 내내 나가지 않겠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부실을 털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재무구조를 고치고 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해 유동성 문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TV “이제는 디자인 경쟁”

화질 경쟁이 ‘디자인’ 경쟁으로 옮겨가

2000년대 초반 HD TV가 등장하며 시작된 TV의 화질 경쟁이 ‘디자인’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TV업계는 색 재현율을 기준으로 제품의 좋고 나쁨을 평가해왔다.

영상 기술은 흑백에서 컬러, 고화질에서 초고화질로 진화해왔다.

이러한 화질 경쟁이다.

최근에도 삼성전자는 LED에 퀀텀닷 기술을 입힌 QLED TV, LG전자는 OLED TV를 선보이며 화질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이 높아지자 화질 경쟁은 자연스럽게 디자인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세리포TV’를

출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LG전자도 캐릭터를 탈 부착할 수 있는 ‘투키TV’를 선보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삼성전자는 화질 경쟁 종결을 선언했다.

삼성전자는 ▲TV의 기본인 최고의 화질 ▲집안 어디든 놓을 수 있도록 TV 설치의 자유를 주는 디자인 ▲사용자 개인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 기능 등을 새로운 TV가 갖춰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투명 광케이블 하나로 TV 주변 기기들을 모두 연결할 수 있고 15미터 이내 거리라면 주변기기를 따로 설치해도 제어 가능한 기능을 선보였으며 ‘발차 웰



삼성 프리미엄 UHD TV MU8500

마운트’ 디자인으로 TV와 벽 사이의 틈을 거의 없앤 제품을 출시했다. 전문가들은 차세대 프리미엄 TV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요소를 갖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한 가전업계 관계자는 “TV는 그동안 대형화와 프리미엄화가 동시에 이뤄진 제품”이라며 “깔끔한 디자인을 갖춘 제품이 적당한 가격으로 공급될 경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4대 시중은행 평균 연봉 8200만원

지난해 4대 시중 은행원들의 연봉이 82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각 은행의 연차보고서를 종합하면 신한·국민·하나·우리은행의 평균 연봉은 82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의 1인당 평균 보수가 8470만원으로 4대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의 작년 당 기준이익은 1조9403억원으로 시중은

행 가운데 1위다.

국민은행은 8300만원, KEB하나은행은 8200만원, 우리은행은 8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임원들의 보수도 신한은행이 가장 많았다.

본부장급 이상 신한은행 임원은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해 1인당 평균 5억1000만원의 보수를 챙겨 1위였다.

연봉은 KB국민은행 이사들이 가장 많이 받았다. /뉴시스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